

# 국제 “국가재정관리 컨퍼런스” 발표 및 World Bank 협의를 위한 출장복명서(안)

## □ 출장 목적

① World Bank와 IMF 등의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구축된 “국가재정관리 국제컨소시움(ICGFM)”이 미국 Miami시에서 주최하는 연차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한국의 공공투자관리(PIM; Public Investment Management) 개혁사례에 대하여 발표 및 토론을 함.

- 당초 본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참석 예정이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불참하게 됨에 따라 대참을 기획재정부 및 세계은행이 요청함.

② 더불어 World Bank 재정국을 방문하여 그동안 공동 추진해 왔던 공공투자사업 관리 현황 및 제도개선 사례 논문에 관하여 회의를 하고, 출장자의 자문관 파견 후의 협력방안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음.

## □ 출장자

○ 공공투자관리센터 김재형

## □ 출장일

○ 2012년 4월 29일(일) ~ 2012년 5월 6일(일)

## □ 출장 일정

- 2012년 4월 29일(일) : 서울 출발, 미국 마이아미 도착
- 2012년 4월 30일(월) : 국제회의 개최 및 참석
- 2012년 5월 1일(화) : 국제회의 발표 및 토론
- 2012년 5월 2일(수) : 국제회의 발표 및 토론, 워싱턴으로 이동
- 2012년 5월 3일(목) : World Bank 재정 전문가 회의
- 2012년 5월 4일(금) : World Bank/IMF 전문가 면담
- 2012년 5월 5일(토) : 워싱턴 출발
- 2012년 5월 6일(일) : 서울 도착

## □ 출장 내용

- 본 국제회의에는 국가재정관리에 관심이 있는 약 40여개국의 전문가 2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, World Bank, IMF, IDB 등의 국제기구 전문가와 학계 및 컨설팅계의 다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임.
- ICGFM 연차 회의는 매년 2회씩 열려 왔는데, 올해는 26차 회의로서 21세기를 대비한 정부의 재정관리 체계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음.
- 발표자들은 World Bank, IMF를 비롯하여 USAID, IDB 등의 국제기구와 우간다, 나미비아, 케냐, 오스트리아, 캄보디아, 한국, 요르단, 네팔, 호주, 독일, 페루, 인도, 미국 등의 전문가가 나서서 진행하였음.
- 미국의 재정학회에서도 여러 핵심 교수들이 참여하여 미국 사례로부터의 교훈을 발표함.
- 관심의 초점은 21세기에 정부의 재정관리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기술과 책임성을 동반한 재정관리 방법을 찾는 논의에 있었음.
- 한국의 경우는 최근 10여년 간의 정부 공공투자관리 및 국가중기재정운요계획 노력 및 경험이 큰 관심의 대상이었음.
- 한국의 공공투자관리, 즉 PIM (Public Investment Management) 효율화 경험은 다른 나라, 특히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들에서 큰 관심을 받았음.
- 향후 한국 정부가 아프리카 및 남미 국가들에 대한 PIM 개혁 사례 개별 컨설팅을 할 수 있는지 문의가 여러차례 제시되었음.
- 본 국제회의의 다른 하나 특징은 실제 정부 대표들만 모여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재정관리를 집행하는 작업에 참여하는 민간부문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집행단계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을 함께 토론하는 것이었음.
- 민간의 전문가들은 실제로 재정관리 업무, 특히 전자 정부의 IT 기술이나 조세 및 예산지출 관리 시스템 개발에 큰 관심을 보였

으며, 이들의 실제 단계에서의 중요함을 역설하였음.

- 정부 회계처리 방법 및 기술에 관한 논의도 심도있게 진행되었는바, 정부회계 처리에서 Contingent Liability 등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노하우를 토론하였음.
- 회계의 투명성 문제가 많은 나라들에서 문제로 제기되었으나,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회계부문의 쟁점은 그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기에 중요성이 덜하다는 판단을 하였음.
- 기획재정부에서 World Bank에 파견 나가 있는 강영규과장이 참석하여 한국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실행 사례에 대한 교훈을 발표하였는바, 향후에도 계속해서 ICGFM 회의에 한국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한국사례의 노하우 및 교훈을 다른 나라 및 국제기구들과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.
- 더불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도 ICGFM 회의의 주요 내용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주요 쟁점과 유사한 점이 많은 만큼 지속적인 follow up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음.
- 귀국 길에 워싱턴의 World Bank 재정국을 방문하여 본 회의의 결과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쟁점을 공유하였으며, 향후 공공투자관리센터와 세계은행 재정국의 공동 관심사로 추진할 수 있는 쟁점들이 무엇인지 논의하였음.